



홍콩의 딸기 삼국지

한국·일본·미국이 주도하는 홍콩의 딸기시장

2020년 기준, 홍콩의 딸기 수입규모는 6,594톤, 6,546만 8천 달러(한화 약 771억 4,000만 원)이다. 한국·미국·일본이 전체 물량의 약 77%, 금액의 약 84%를 차지해 3개국이 홍콩 수입 딸기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1년 내내 딸기 재배가 가능한 미국은 물량기준 1위 국이며,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한 일본은 금액기준 1위국이다. 한국은 우수한 품질과 높은 가성비로 물량 및 금액기준 2위국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1,902톤, 1,718만 달러(한화 약 202억 4천만 원) 규모의 딸기를 홍콩으로 수출했다. 2021년 10월 기준, 對홍콩 한국산 딸기 수출 실적은 1,824톤, 1,719만 달러(한화 약 203억 원)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딸기시즌에 맞춰 성장세가 더욱 기대되며, 2021년에는 한국이 물량기준 홍콩의 최대 딸기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최근 3년 홍콩 딸기 시장 규모

(단위 : 톤, 천 달러)

	2018		2019		2020		2021 (1~10월)		점유율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7,399	64,127	6,618	59,366	6,594	65,468	5,154	59,197	100.0	100.0
1 미국	2,649	18,730	2,201	16,192	2,062	14,672	1,582	12,523	31.3	22.4
2 한국	2,115	16,804	2,174	16,943	1,902	17,181	1,824	17,197	28.8	26.2
3 일본	1,031	19,564	921	17,331	1,130	23,427	1,281	24,862	17.1	35.8
기타	1,604	9,029	1,322	8,900	1,500	10,188	467	4,615	22.8	15.6

자료 Global Trade Atlas, HS코드 : 081010 (Strawberries, Fresh)

1 한국 안정적인 품질과 높은 가성비로 선점 중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 딸기 생산국이다. 최근 몇 년간 홍콩에서 한국산 딸기는 안정적인 품질과 훌륭한 가성비로 홍콩 딸기시장을 선점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선진화된 재배기술로 단맛과 신맛의 조화와 식감과 달콤한 향을 특장점으로 한 새로운 품종이 속속 출시되어 홍콩에서 판매되는 품종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설향(雪香)>은 한국의 '국민 딸기'로 불릴 정도로 한국 내수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종이다. 부드러운 과육이 특징으로 입에서 눈처럼 녹으며 단맛과 달콤한 향이 강하다.

그러나 저장성이 낮아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홍콩에 진

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금향(金香)>과 <아리향(阿里香)>은 2020년 홍콩에 처음 선보인 최신 품종이다.

금향은 설향과 매향의 교배종으로 상쾌한 식감과 함께 단맛과 신맛의 조화로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홍콩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국산 딸기 품종은 <매향(梅香)>으로 상큼한 맛과 풍부한 과즙과 향으로 이미 홍콩에서 확고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15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와 개당 70g 이상의 킹스베리, 하얀 딸기 품종인 핑크벨 등이 진출하여 홍콩 프리미엄 딸기시장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홍콩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딸기



금향



아리향



설향



킹스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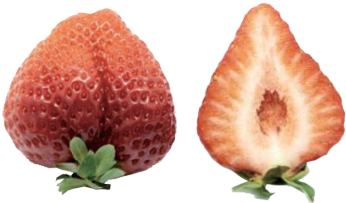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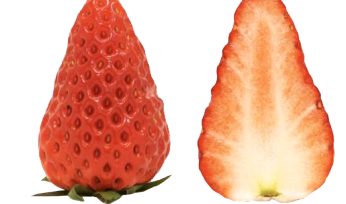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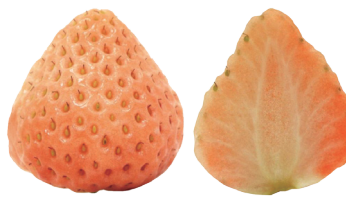
매향



핑크벨

2 일본 내수 경쟁 속 품종 개발, 정보에 근거한 소비 가이드 라인 제공

홍콩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인기 딸기 품종

 스위트킹 / 甜王(あまおう) 후쿠오카현의 독특한 품종 홍콩에서 가장 인기있고 친숙한 일본산 품종. 동그랗고 과육이 탄탄함. 과즙이 많고 산미. 당도가 적당함 당도 11이상 경도 ♥♥♥♥♥ 과즙 ♥♥♥♥♥	 레드치크 / 紅臉頬(紅ほっぺ) 장희(章姫)와 행지향(幸之香) 교배종선명한 붉은색. 단맛과 신맛이 강함 딸기 본연의 새콤달콤한 맛 당도 11~13도 경도 ♥♥ 과즙 ♥♥♥♥♥	 이슬방울 / 露之水滴(ひのしずく) 구마모토현 대표 품종 중 하나 현지의 깨끗한 수질로 이슬방울이라고 부름. 과즙과 당도가 풍부하고 산미가 적어 딸기향이 강함 당도 11~13도 경도 ♥♥♥ 과즙 ♥♥♥♥♥
 구마레드 / 熊紅(ゆうべに) 구마모토현의 대표 품종 중 하나 10년간의 품종 개발을 통해 출시됨 통통한 원뿔형에 알이 크며 과즙이 풍부하고 적당한 단맛·신맛이 있음 당도 11이상 경도 ♥♥♥♥♥ 과즙 ♥♥♥♥♥	 사이니 / 閃耀香(きらび香) 장희(章姫)와 레드치크(紅臉頬)교배종 올해 새로 나온 품종으로 희소성 높음 이름과 같이 반짝이며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특징임 당도 12 경도 ♥♥♥ 과즙 ♥♥♥♥♥	 담설 / 淡雪(あわゆき) 하얀딸기로 딸기향이 진하고 과육이 부드러워 더욱 달콤하게 느껴짐 하얀딸기 품종으로 재배가 어려워 고가에 판매됨 당도 12 경도 ♥♥♥ 과즙 ♥♥♥♥♥

① 활발한 품종 개발과 부드러운 과육에 적합한 운송 기술 연구

일본은 전 세계에서 신선 딸기 소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산지별 경쟁이 치열하고 재배기술 연구가 활발해 매년 새로운 딸기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그 결과 10~20년 주기로 딸기 품종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까지는 <토요노카(Toyonoka)> 와 <노호(女峰)>가 주요 품종이었으나 최근에는 후쿠오카 현의 <스위트킹(甜王, あまおう, 아마오우)>, 시즈오카현의 <레드 치크(紅臉頬, 紅ほっぺ, 베니훗삐)>, 구마모토현의 <이슬방울(露之水滴, ひのしずく, 히노시즈쿠)>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세계적으로 딸기 품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본산 딸기 품종이 약 300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산 딸기는 신종종·재배방법 개발은 물론이며 생식을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생산된 딸기의 당도, 크기, 과즙, 안전성 등은 홍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이 높다. 부드러운 과육은 일본산 딸기의 큰 장점인 동시에 운송 중 손상되기 쉬운 수출 시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에 과일 호흡을 조절하는 CA 컨테이너(Controlled Atmosphere container), 고전압 컨테이너(high-voltage type container) 등을 도입해 운송과정에서의 신선도 유지에도 집중하고 있다.

② 품종·당도·크기 등급 체계, 소비자는 취향에 따라

홍콩의 딸기 진열대에서 일본산 딸기의 품종별 특징을 한눈에 소개한 안내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최적의 딸기를 고를 수 있도록 딸기의 당도, 산도, 향, 과육 경도 등 품종별 특징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다양한 딸기 품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콩 미디어를 활용해 품종별 특징점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딸기상자 표면에 품종, 생산자 및 딸기 크기¹와 당도², 모양 등 정보를 세분화된 등급체계에 따라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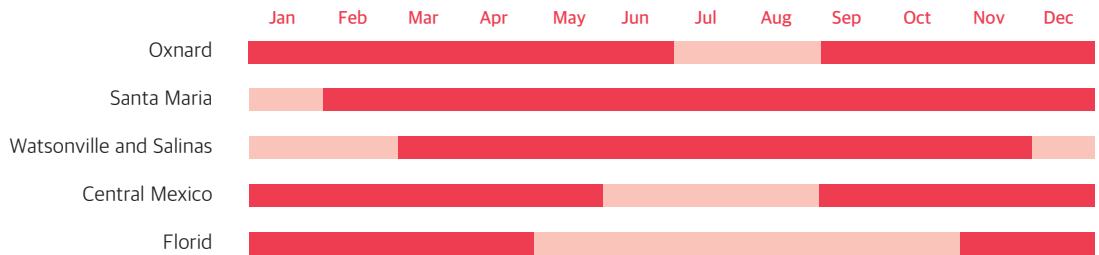
따라서 홍콩 소비자에게 일본의 딸기 등급체계를 소개하고 딸기 구매 시 상자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 1 크기(體積) : 홍콩에서 주로 2L~5L 크기의 딸기가 유통되며, 숫자가 클수록 큰 딸기. 스위트킹은 G(Grande), DX(Deluxe), EX(Excellent) 등급 체계를 활용함. G는 개당 30g 이상, DX는 개당 30g 이상으로 모양도 일정함, EX는 개당 40g 이상임.
- 2 당도(糖度) : 일부는 Brix를 표기함. 일반적으로 8-18 사이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당도가 높음.

- 1 일본산 딸기 품종별 특징을 안내한 판매대
- 2 일본산 딸기 등급 체계를 소개하는 언론기사



미국 주요 딸기 생산지 및 생산 시기



3 미국 1년 365일 딸기를 생산하는 미국

미국은 전 세계 최대 딸기 생산국으로 1년 내내 딸기가 생산된다. 미국 서부 옥스나드, 샌터메리에, 샬리나스 및 남부 플로리다 등지에서 생산되며 미국산 딸기는 홍콩에서 사계절 내내 판매되고 있다. 홍콩에서 유통되는 미국산 대표 딸기 브랜드인 <드리스콜스(Driscoll's)>는 일관된 포장으로 신선과일 선반에 늘 자리잡고 있어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산 딸기는 일조 시간이 길어 열매가 크고 색이 밝아 외관은 우수하지만 과육은 단단하고 단맛과 향은 낮은 편이다.

과일 전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딸기 포장 선호

영양가, 생산과정 추적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지 및 생산자의 사진을 활용한 포장, 항공 직송을 강조한 로고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과일을 보호하고 멍이 드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과일 전체를 쉽게 볼 수 있는 포장 용기인 1단 용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활용한 특별 포장, 하트모양 용기 포장도 눈에 띈다.



작성자 | 홍콩지사 정지은

Key Point

홍콩 딸기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다. 원산지는 물론이고 품종 간 경쟁도 치열하다. 공급자가 브랜딩, 과일 품질, 크기 및 공급 측면에서 일관성 높은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한 도소매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과육의 식감·당도·향 등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품종에 대한 특징을 제공함으로써 구매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접목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선물에 대한 수요는 1년 내내 있지만 특히 한국산 딸기시즌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설날, 발렌타인데이, 부활절 등 특별한 행사가 밀집돼 있다. 또한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빨간색은 행복과 번영을 의미하는 색이다. 따라서 딸기 색과 수확 시기는 선물로써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